

제7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 당사국 총회 참석 결과 보고

I.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7차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당사국총회 (7th Session of the Assembly of Parties of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 **개최일시 및 장소** : '18.9.27(목)~28(금), 오스트리아 비엔나 VIC

□ **주관기관** : 국제반부패아카데미(IACA)

□ **참석자** : 56개 당사국, 옵저버 국가 등 총 70개국 270명 참석

- 우리 대표단 : (수석대표) 권익위 위원장, (대사관) 신동익 대사, 최태호 참사관, 이예현 서기관, (권익위) 김남두 혁신행정담당관, 국제교류담당관실 강미영, 한효정

□ 핵심요지

- **일반토론**에서는 총 25명의 각국 고위급 인사가 IACA의 반부패 교육 및 훈련 활동에 대한 지지와 더불어 자국내 반부패 노력에 대해 발표하였음
- **IACA 재정** 관련, 이사회 의장과 학장은 재정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파산에 이를 수도 있으며, 당사국 기여가 절실하다고 호소
- **이사선거** 관련, 권익위 위원장이 '19년 11월부터 5년 임기의 집행 이사회 임원으로 선출
 - 아태지역 그룹에 배정된 2개 이사직에 대해 중국, 말레이시아, 한국, 이라크가 협의한 끝에, 6년 임기 이사직은 이라크가 '18년 11

월부터 1년간 수행하고 뒤를 이어 한국이 5년을 수행하고, 3년 임기 이사직은 중국이 올해부터 수행하기로 합의하고 총회에서 승인

- 또한, 총회는 ① IACA 활동강화에 관한 결의안(오스트리아 제안), ② IACA 도서관 강화에 관한 결의안(파키스탄 제안), ③ 일반사항에 관한 결의안(카자흐스탄 제안)을 승인

□ 관찰 및 평가

- 그 동안 IACA 재정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총회에서 논의해 왔으나, 이사장이 조만간 파산(insolvency)에 이를 수도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심각한 상태로 보임
 - 다행인 점은, 터키를 제외한 당사국들도 더 이상 기여금의 '자발적 성격'을 강조하지 않고 있는 점으로 비춰,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 '범죄자 부담'* 원칙을 최초 적용하여 기여금을 제공한 리히텐슈타인, 도서관 강화 목적으로 기여금을 제공한 파키스탄 등, 기여금을 제공하는 당사국들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음

* 범죄자 부담(let crime pay) 원칙이란, UN반부패협약에 명시된, 부패범죄로 몰수된 수익을 부패척결 비용에 사용한다는 의미(환경 오염자 부담 원칙에서 유래)

- 관심의 대상이었던 이사회 임원 선출관련, 아태지역 그룹에서 2개 공석에 비해 4명 후보 출마로 마지막 날까지 협상이 지속
 - 지역 그룹 의장인 중국측의 조정과, 후보국의 대사들간 이사수임 필요성과 후보의 적절성을 논의한 끝에 말레이시아가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라크가 1년 임기만을 맡기로 양보하면서 합의
- 금번 한국의 이사 선출을 계기로 IACA와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사업 및 총회 개최 등 다양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필요

II. 위원회 주요 활동

-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한국의 최근 반부패 활동과 성과, IACA와의 협력 활동, '20년 개최 예정인 IACC 회의 참석 요청
- 이사 선거 관련, 우리 위원회 지지를 표명한 국가 대표단(5개) 및 중국 대사(사전 조정), 말레이시아 및 이라크(양보)에 감사 표현



<몽골 반부패청장>

<중국 대사>

<이라크 전 청렴위원장>

- 국제기구 및 MOU체결·정책교류를 통해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 대표들과 만나 지속적인 **협력 유지** 의사를 밝힘



<UNODC 국장>

<말레이시아 부방위 대표단>

<인도 부방위 대표단>

- 이사 확정 후 확대의장단 의장, IACA 학장 및 이사회 **임원들과 인사**



<확대의장단 의장(볼리비아)>

<IACA 학장>

<이사회 임원들>

III. 회의 논의 상세

1. 회의 조직

가) 개막식

- 개막식이 직전에 열린 의장단 선출 논의가 길어지면서, 총회 개회가 1시간동안 지연되었고, 그에 따라 개막식 축사 없이, 바로 진행
- 제6차 당사국총회 의장단 의장인 이집트 대사 Mr. Omar Amer Youssef가 개회를 선언하였고, IACA 학장, 지난 의장단 회원국들에 감사를 표하고, 2017년 이집트에서의 제6차 총회 이후 성과를 반추함
- 학장은 IACA의 최근 성과를 총회에 보고하였는데, 제6차 총회 이후 기니와 모리셔스가 협약을 비준함에 따라 현재 73개 당사국이 되었으며, 2018년 10월에 파라과이가 공식적으로 당사국이 되면 74개국으로 늘어날 것임을 보고
- 학장은 올 6월 오스트리아 대통령이 아카데미를 방문하여, 이아카가 반부패 분야 교육에서 국제적 우수 센터로서, 중요한 국제 현안을 해결하는데 기여하고 있으며, 오스트리아의 지지를 계속 얻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고 보고.
- 학위과정, 표준과정, 맞춤형과정을 통해, 이아카는 전세계 159개국 1,700여명의 반부패 전문가 역량을 배양하였으며, 20% 이상 저개발 국가 학생들을 지원해 왔다고 강조
- 제6차 MACS(반부패석사과정)은 2018년 10월 시작되며, 제2차 IMACC(민간부분 반부패석사과정)은 2019년에 시작될 예정이며, 반부패분야 최초의 국제적인 박사과정을 2019년에 시작하기 위해 준비중임을 알리면서, 이는 재원부족으로 인해 2018년에 예정되었던

과정이 연기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

- 여름아카데미 과정은 가장 규모가 큰 표준연수과정으로, 지금까지 전세계 120개국 500명을 교육하였으며, 지역여름아카데미는 아르헨티나, 쿠웨이트, 우간다에 이어, 올 9월초에 중국 베이징에서 지역 여름 아카데미 과정을 운영하였음
- 맞춤형 과정에 대한 수요는 더욱 더 증가하여, 2018년 9월 26일 총회 전날에, 러시아 재정 지원하에,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을 위한 제3차 연수과정이 완료되었다고 언급
- IACA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정과 관련하여, 다수의 UN 결의안에서 IACA에 대한 명시적 감사표시가 있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7년 6월 UN인권이사회 결의안 35/25이 있었음
- IACA 프로그램과 졸업증은 “볼로냐 프로세스”라 불리는 유럽고등교육지역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으며, 그 외 많은 국가들도 인정하고 있음. 이들 중 MACS는 전세계 가장 유명한 대학인 하버드, 옥스포드, 존홉킨스, 듀크, 캠브리지 대학도 인정하고 있음
- IACA는 2017년에 연구원 과정도 시작하여, 웹사이트에서 접근가능한 다수의 연구자료를 공개하고 있음
- 학장은 이러한 성과를 매우 제한된 자원하에서 이루어 냈으며, 현재 갖고 있는 자원으로는 더 이상 프로그램과 활동에 대한 점증하는 수요와 기대를 충족시킬 수 없다고 덧붙임
-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총회가 기존에 논의된 바 있는 자금마련을 위한 여러 수단 등을 통해 이아카의 재정적 책임감을 더욱 제고할 것을 요청하면서, 학장은 “범죄자 부담” 원칙에 따라 최초로 IACA에 기여금을 제공한 리히텐슈타인과, IACA 도서관을 업그레이드할 목적으로 기여금을 낸 파키스탄에게 감사를 표함

- 또한, 모든 회원국들이, 조만간 마련될 ‘재정자원과 안정성에 대한 워킹그룹’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유사한 생각을 갖고 있는 회원국들이 기여할 수 있도록 IACA 설립협정에 대한 별도 의정서 제안을 강조하였음

나) 의장단 선출

- 한 지역그룹의 의장단의 의장직 포기로, 별도 결정이 있기 전까지 전 의장이 계속해서 동 총회 의장 역할을 하기로 총회에서 결정. 의장단은 다음과 같음:
 - 의장: Mr. Omar Youssef (이집트, 아프리카 그룹)
 - 부의장: Mr. Victor Alfredo Veltz Michel (볼리비아, GRULAG 그룹)
 - 부의장: Mr. Gocha Lordkipanidze (조지아, 동유럽 그룹)
 - 서기: Mr. Charles Oko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그룹)
 - 서기: Mr. Abdullah N. Al-Obaidi (쿠웨이트, 아태 그룹)

다) 의제 채택 및 참석자

- 당사국은 의제를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 참석한 당사국은 다음과 같음: 아프가니스탄, 알바니아,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볼리비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부르키나파소, 캄보디아, 칠레, 중국, 코트디보아르, 사이프러스, 체코, 이집트, 엘살바도르, 핀란드, 조지아, 그리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라크, 요르단, 카자흐스탄, 쿠웨이트, 키르기스, 레바논,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말라위, 말레이시아, 몰디브, 멕시코, 몽골, 몬테네그로,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파나마, 필리핀, 한국, 몰도바, 루마니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수단, 시리아, 태국, 마케도니아, 코도, 터키, 국제이민기구(IOM)

라) 읍저버

- 3개 서명국과 18개 비서명국, 총 21개국 읍저버가 참석하였음
- 참석한 서명국은 다음과 같음: 케냐, 리비아, 예멘
- 참석한 비서명국은 다음과 같음: 알제리,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도미니카공화국, 이란, 라오스, 모로코, 미얀마, 오만, 카타르, 시에라리온, 스위스, 우즈베키스탄, 걸프협력회의(GCC),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석유수출국기구(OPEC), UNODC, 월드뱅크

마) 신입장 채택

- 집행서기는 60개 당사국 중 57개 당사국이 동 총회 참석을 위한 신입장을 제출했다고 밝혔고, 총회는 신입장에 대한 의장단 보고서를 채택함

바) 일반 토론

- 아태그룹 의장인 중국 대사(Mr. Qun Wang)를 시작으로, 말레이시아 총리실 법무 장관(Mr. Datuk Liew Vui Keong), 쿠웨이트 반부패 청장(Mr. Abdulrahman Al-Nemash), 수단 법무부장관(Mr. Omer Ahmed Mohamed Ahmed), 한국 권익위원장(박은정), 아제르바이잔 이민청장(Mr. Vusal Huseynov), 카자흐스탄 공직반부패청장(Mr. Alik Shpekbayev), 중국 기율조사감사원 부학장겸 당서기(Mr. Chen Ruiwu), 러시아 대사(Mr. Andrey Avetisyan), 터키 대사(Mr. Ahmet Muhtar Gun), 오스트리아 대사(Mr. Helmut Tichy), 키르기스 대사(Mr. Bakyt Dzhusupov), 칠레 대사(Ms. Gloria Navarrete), 파키스탄 대사(Mr. Mansoor Ahmad Khan), 아르헨티나 대사(Mr. Rafael Mariano Grossi), 아프가니스탄 대사(Mr. Khojesta Fana

- Ebrahimkhel), 나이지리아 대사(Mr. Vivan Okeke), 인도네시아 부대사(Mr. Witjaksono Adji), 이라크 참사관(Mr. Muhannad Alshahman), 브라질 이등서기관(Mrs. Natasha Federative Penha), 리히텐슈타인 일등서기관(Mr. Claudio Nardi), 멕시코 삼등서기관(Mr. Marco Negrete Jimenez), 사우디아라비아 국가반부패위원회 국제협력팀장(Mr. Nassar Abaalkhail), 모로코 행정공직개혁 총리보좌관(Mr. Mohammed Ben Abdelkader), 알제리 대사(Mr. Billel Hassani), 유럽 안보협력기구 경제환경 코디네이터(Ms. Ermellinda Meksi)가 발언함
- 부의장인 볼리비아가 오스트리아 대표 연설부터 두번째 의제까지 세션을 진행
- 아르헨티나, 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한국, 러시아가 자국의 재정 기여 또는 직원파견을 통한 기여에 대해 언급하였음
- 오스트리아는 자국이 IACA 일반예산에 상당한 재정 기여를 해 왔으며, 타 당사국들도 이아카를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음
- 아프가니스탄은 IACA에 소규모의 재정지원을 할 것이라고 발언하였고, 브라질도 IACA에 재정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
- 카자흐스탄은 2019년 제8차 당사국 총회 개최 의사를 표했으며, 러시아는 이를 환영한다고 언급
- 중국은 IACA 지역여름아카데미를 베이징에서 2018. 9. 6-16일간 진행하였다고 알림
- 브라질과 말레이시아 각각 브라질리아와 쿠알라룸푸르에서 MACS 모듈 일부를 진행한 바 있다고 언급
- 쿠웨이트도 2017년 12월 쿠웨이트 시에서 쿠웨이트 반부패청과 공동으로 지역여름아카데미를 진행하였으며, IACA 학위과정을 인정하

기 위해 노력중이라고 언급

- 러시아는 자국이 현재 3회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 회원국을 위한 훈련 비용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
- 칠레는, 이아카가 지역 세미나 개최를 희망한다면, 자국의 회계감사원이 기꺼이 지원할 것이라고 발언
- 파키스탄은 총회가 이아카 도서관 강화할 것을 요청
- 카자흐스탄은 2018년 5월에 이아카와 자국의 공직반부패청간 MOU를 체결하였다고 알림
- 사우디아라비아는 자국의 국가반부패위원회(Nazaha)가 이미 IACA와 MOU를 체결했다고 알림
- 유럽안보협력기구는 반부패 분야에서 이아카가 뛰어난 성과가 있었음을 칭송
- 대표단들은 IACA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표명하고, 반부패 교육, 연구, 역량배양, 네트워킹, 협력 측면에서 이아카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일부는 가용자원의 범위내에서 이아카가 서비스 전달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기도 함.
- 대표단은 이아카의 학위과정, 표준과정, 맞춤형과정의 수준과 적절성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었으며, 많은 국가들은 이아카 프로그램에, 저개발국가를 위한 장학금 등, 지역적으로 다양한 참여자 확보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일부 대표단은 가능한 장학제도를 더욱 확대해 줄 것을 요청

2. IACA 발전: 이사회 보고 및 논의

- Eduardo Vetere 이사장은 IACA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재정난으

로 인해 계획했던 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바, 당사국들에게 재정적 기여를 호소

- 지난 7년 반동안 IACA는 극히 제한된 인적 재정적 자원하에서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교육에서 국제적 브랜드를 수립하는 성과를 냄
- 그러나 작년 총회에서 승인된 2017-2020 작업계획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당사국들로부터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함
- 올해 있었던 3번의 이사회(3월, 6월, 9월)에서는 재정 문제가 핵심 의제였으며, 현재와 같은 예산상황에서는 동 작업계획의 이행은 불가능
- 당사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2017년의 경우 IACA 수입의 19% 미만에 불과하여, 그 나머지를 다른 재원에서 충당해야 하고 있음
- 이 같은 상황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IACA의 미래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는 바, 토론과 좋은 말이 아니라, 구체적인 재정 지원 노력이 필요함
- 지난 총회 이래 재정 기여금을 제공한 나라로 아르헨티나, 아제르바이잔, 중국, 헝가리, 쿠웨이트, 리히텐슈타인, 말레이시아, 몽골, 파키스탄,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가 있음
- 직원 파견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자문, 계획 및 운영 등을 지원한 한국에 감사드립니다
- 리히텐슈타인이 최초로 “범죄자 부담” 원칙에 따라 IACA에 재정기여한데 감사를 표하며, 파키스탄이 IACA 도서관 강화를 목적으로 기여한데 감사를 표시

- IACA의 host 국가인 오스트리아에게 최대의 감사를 표하며, 계속해서 IACA가 존재할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 줄 것을 요청
- 지난 당사국총회 결의안이었던 재정에 대한 정부간 워킹그룹의 중요성을 강조하되, 동 워킹그룹이 기존의 기능과 중복되거나, IACA에 업무를 더해서는 안된다고 설명
- 이사장은, 모든 당사국들에게 구체적인 재원을 약속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소액이라도 정기적인 연간 기여금을 통해서만이 IACA 재정을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반석위에 놓을 수 있음을 호소
- 2017년 외부회계감사 보고서(파키스탄, 러시아, 태국)에서 경고한, 2017년 수입 부족분으로 인한 “파산 위험”이 현실화 될 것임
- 이사회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이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임기가 종료된 임원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한편, 새로 선출된 임원들은 IACA에 대한 노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자문해 볼 것을 요청

3. 프로그램 및 활동

- 지난 1년간 이아카 활동 보고를 위해, IACA 직원과 졸업생들이 발표하였음
- 이사회 선거 및 내년도 총회 관련 비공식 협의를 위해 의장이 일시 휴회를 선언하였고, 사이드 이벤트로 “부패와 원조”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

4. 자금마련활동 및 IACA 재정안정성 (동 의제는 안건6번 이후 논의)

- 집행서기는 모든 당사국들에게 지난 총회 결의안에 포함된, 재정에 대한 정부간 워킹그룹에 참여해 줄 것을 강조

- 러시아는 동 워킹그룹 관련 9월 24일에 있었던 전문가 회의 결과를 환영한다고 언급

5. 2019 예산(동 의제는 안건6번 이후 논의)

- 집행서기는 사무국이 작성한 2019년 예산안을 총회전 공유하였으며, 동 제안은 실제 수입이 아닌 희망적인 예산안으로, 동 예산이 주어진 상황에서만이 목표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임
- 러시아는 사무국이 (연수 프로그램 이외)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계정잔액을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가용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사무국에 요청
- 총회는 이아카 2019 예산 결의안을 채택함

6. 이사 선출

- 총회는 이집트(아프리카 그룹), 중국, 이라크, 한국 (아태 그룹), 러시아(동유럽 그룹)를 이사로 선출하였고, UNODC는 재선출하였음
- 아태지역그룹에서 중국은 2018~2021년(3년)간, 이라크는 2018~2019(1년간), 한국은 2019~2024년(5년)간 임기를 맡기로 합의가 되었고 이를 총회가 승인하였음
- 나머지 이사의 임기는 모두 6년임
- 총회는 집행이사회 선거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 한편, 의장단 선출과 관련하여, 총회는 볼리비아 대사 Mr. Victor Alfredo Veltz Michel를 의장으로 하고, 부의장 직을 한국 신동익

대사가 승계하기로 결정함

7. 기타 사안

- 한국 대표는 전직 및 현직 의장과 학장, 사무국, 아태지역그룹 의장에게 감사를 표함
- 집행서기는 합의를 이끌어낸 당사국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면서, 특히 아태지역그룹내 끈질긴 노력 덕분에 동 총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에 감사함
- 당사국과 사무국의 요청에 따라, 집행서기는 분명한 의사결정을 위해, 당사국가 확대의장단이 결정한 기한을 모든 당사국들이 준수해 줄 것을 요청함

8. 제8차 당사국 총회를 위한 임시 의제

- 집행서기는 조지아와 카자흐스탄이 2019년 8차 총회 개최 의사를 표했으나, 조지아가 카자흐스탄에게 양보하였다고 언급
- 카자흐스탄은 조지아 측의 제안 철회에 감사를 표하며, 추후 조지아의 총회 개최를 희망한다면 조지아를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
- 총회는 아래와 같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함
 - 제8차 총회 개최 및 의제 결의안
 - 이아카 활동 강화 결의안(오스트리아 제안, 말레이시아, 러시아 후원)
 - 일반사안에 대한 결의안(카자흐스탄 제안, 오스트리아, 말레이시아, 러시아 후원)

- 이아카 도서관 강화 결의안(파키스탄 제안, 오스트리아, 브라질, 중국, 말레이시아, 몽골리아, 나이지리아, 러시아, 터키 후원)

9. 제7차 총회 보고서 채택

- 총회는 제7차 총회 보고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함

붙임자료: 1. 위원장 기조연설문 2. 채택된 결의안(7종)

Keynote Speech

7th session of the Assembly of Parties, IACA

27 Sept. 2018

Honourable Mr. President,

Distinguished delegations and anti-corruption experts from countries around the world,

Ladies and gentlemen,

It is my great pleasure to have an opportunity to speak before you to represent the Republic of Korea. I am 박은정, Chairperson of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you on the opening of the 7th Assembly of Parties of the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and extend my gratitude to all the people who have worked hard to prepare this meaningful event.

Distinguished anti-corruption colleagues!

First, let me briefly explain anti-corruption developments and government efforts to fight corruption in Korea.

In May 2017, Korean people, critical of corruption of the then government, decided to hold corrupt government accountable and entrusted the current Moon Jae-in administration with power. Right after taking office, President Moon proclaimed removing corruption through full-scale anti-corruption reform as the number one priority in running the state, clearly showing his will to root out corruption.

In line with the government's strong focus on ending corruption, ACRC, as Korea's anti-corruption policy control tower, holds regularly Anti-Corruption Policy Council meetings chaired by President Moon Jae-in. And last April, the Council adopted the five-year comprehensive national anti-corruption plan.

This long-term plan contains 50 anti-corruption tasks reflecting public opinions from various walks of life. The four underlining values in implementing the 50 tasks are collective anti-corruption efforts, clean public sector, transparent business environment and integrity into action.

In addition, ACRC launched Anti-Corruption Public-Private Partnership Council. This consultative body enables government agencies,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he economic sector, and expert groups to participate in establishing and monitoring government's anti-corruption policies. It is expected to serve as an platform to spread the administration's strong anti-corruption efforts throughout the entire society.

Now I am going to talk about one of the most effective anti-corruption laws of Korea,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Last week, two years after the law took effect in September 2016, ACRC conducted a perception survey on the Act.

According to the survey, as many as 90 percent of the Korean people replied that they support the law, and the law actually reduced the number of cases where people use their personal network for favor in public services, or give gifts and hospitality to public officials.

The Act prevents not just traditional corruption such as bribery and embezzlement of public officials, but also the possibility of undue influence on public officials through improper requests or gift-giving in daily lives.

In 2020, Korea will host the 19th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 Korea was selected to hold this one of the biggest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event, given the global attention towards the nation's experience of escaping from a political crisis in a democratic and peaceful way.

The 19th IACC Conference will be a forum where Korea's such experience could be shared with the world and the global community could seek ways to end corruption together. I would like to kindly ask for your interest and participation in this meaningful global conference.

Honorable delegations and participants,

Since signing an MOU with the IACA,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academy have actively cooperated and made exchanges.

Since 2014, Korea has seconded a senior academic advisor and last year, dispatched a new ACRC staff member to the IACA.

Meanwhile, every year the IACA delivers a tailored training for Korean public officials, to help enhance anti-corruption capacity of Korea. This year, from May 30 to June 7, 24 integrity officers of public organizations of Korea received IACA's training.

To encourage anti-corruption officers in public organizations to better use IACA's training, ACRC introduces IACA's programs in detail to public organizations every year, and provides information on the academy's programs to compliance officers in the private sector as well.

I have a strong confidence in the significant role of the IACA, the first international agency dedicated to anti-corruption education and research.

I hope that more countries, by engaging in the academy, could contribute to global efforts to fight corruption and empower their anti-corruption practitioners to effectively prevent and address corruption.

I wish that the IACA could further contribute to strengthening global anti-corruption capacity through its education, training, research and technical assistance. On behalf of the Korean government, I assure Korea's continued support to the academy and the value that it pursues.

Thank you for your attention.

기조 연설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제7차 당사국총회
2018년 9월 27일

존경하는 의장님, 각국 대표단과 반부패 전문가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국민권익위원회 박은정 위원장입니다.

먼저 국제반부패아카데미의 일곱 번째 당사국총회의 개최를 축하합니다. 또한 훌륭한 회의를 준비하여 주신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친애하는 반부패 동료 여러분!

먼저 한국의 최근 부패예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임 정부의 부패에 대한 국민의 높은 반감과 엄중한 심판 속에서 2017년 5월 한국의 새정부가 탄생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새정부 출범이후 적폐청산과 반부패 개혁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부패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반부패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4월에는 5개년 반부패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은 함께하는 청렴, 깨끗한 공직사회, 투명한 경영환경, 실천하는 청렴이라는 4대 전략 하에, 사회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된 50개 반부패 과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정부에서 신설된 반부패 민관협의체는, 정부와 시민사회, 경제계, 전문가그룹이 반부패 정책마련에 참여하고 감시함으로써 새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노력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위원회가 추진하여 성공적으로 이행되는 반부패 정책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2016년 9월에 시행된 청탁금지법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얼마 전(9.20 공개)에 시행 2주년 인식조사를 했습니다. 동법은 국민의 90%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국민들은 이 법 시행으로 인맥을 통해 공적 서비스를 부탁·요청하거나 공무원에게 접대나 선물을 제공하는 횡수가 감소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이 법의 시행으로, 권력형 부패나, 공무원의 뇌물수수·횡령 등 좁은 의미의 부패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벌어질 수 있는 청탁과 선물의 제공, 이를 통한 공무수행에 부적절한 영향 발생 가능성까지도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2020년 제19차 국제반부패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제사회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적 제도의 틀 안에서 정치적 위기를 극복한 대한민국을 주목하고, 이러한 측면에서 TI에서 대한민국을 IACC 개최지로 결정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IACC 회의는 부패척결에 관한 한국의 경험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고, 국제사회가 부패해결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참석하신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단과 참석자 여러분!

한국 정부는 2012년 3월 IACA와 MOU를 체결하고 활발한 교류·협력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4년부터 선임학술전문관 1명을 파견하였으며, 작년에도 직원 1명을 다시 파견하였습니다.

한편, IACA에서는 매년 맞춤형 교육훈련을 제공하여 한국의 반부패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한국 공공기관 소속 청렴업무 담당자 24명이 5월 30-6.7일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권익위는 국내에서 더 많은 공공기관 담당자들이 IACA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으며, 민간부문 기업윤리 담당자들에게도 아카데미를 알리고 있습니다.

저는 세계 최초의 반부패 교육훈련 전담 국제기구인 국제반부패
아카데미의 유용성을 의심하지 않으며,

더 많은 국가들이 아카데미를 통하여 국제적인 반부패 노력에 기
여하고 자국 전문가들의 부패예방 및 척결 역량을 강화할 수 있
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ACA가 교육, 훈련, 연구, 기술지원을 통해 국제사회의 반부패 역
량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교육연구기관으로 발돋
음하기를 기대하면서, 한국을 대표하여 IACA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한 우리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의사를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IACA 이사 당선소감

I would like to express my deepest gratitude to all the
representatives and staff members of the Academy. I am very
pleased to be elected as a member of the Board of Governors.

The role of the IACA is significant as it nurtures capable
anti-corruption experts based on systemic studies and researches
under today's circumstances that corruption has been evolving into
a more sophisticated and diversified form.

It has been less than 10 years now since the establishment of the
IACA. During the time, the IACA has opened 2 Master Degree
programs, MACS and IMACA, and operated other various standard
and customized programs, playing a significant role of supporting
the capacity building of anti-corruption practitioners around the
world. I feel great responsibility to be a board member especially
at a time when the Academy gears up to become a full-fledged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ic center.

Based on the insights, knowledge, and experience gained as a law
professor of 30 years, head of human rights groups, and
Chairperson of the ACRC, I will do my utmost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the Academy with the other respectful board members.

Thank you very much.

국제반부패아카데미의 이사로 활동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며, 당사국 대표단 및 아카데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부패가 점차 지능화·다양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맞서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반부패 전문가를 양성하는 아카데미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카데미가 설립된 지 채 10년이 되지 않았지만, 그 동안 MACS(Master in Anti-Corruption Studies, 반부패분야)와 IMACC(International Master in Anti-Corruption Compliance and Collective Action, 민간 반부패분야) 석사과정이 개설되고, 다양한 정규 및 맞춤형 프로그램들이 전세계 반부패 전문가들 역량강화를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아카데미가 본격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중요한 이 시기에 이사직을 맡게 되어 무한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30여년의 법학교수로, 인권단체 수장으로, 또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얻은 통찰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존경하는 다른 이사분들과 함께 아카데미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 제7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

1. 2019년 예산안
2. 일반사안에 대한 결의안
3. 이아카 활동강화 결의안
4. 이아카 도서관 강화 결의안
5. 집행이사회 선거 결의안
6. 제8차 당사국총회 개최 및 의제 결의안
7. 제7차 당사국 총회 결과 보고서 (미첨부, 앞의 회의상세 논의 참조)

2018.9.28.

문서번호: AOP7-Res-1

2019년 이아카 예산안 결의안

당사국 총회는,

불임과 같이 2019년 이아카 예산안을 채택한다

2019 예산안

IACA의 2019년 예산은, 조직의 가치와 구성원의 청렴성을 양보하지 않으면서, IACA가 공표한 기능과 전략 목표에 따른 역할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 IACA의 일반 예산은 동 재정의 핵심 기본틀로서 역할을 하기에, 조직의 작업 계획 이행, 조직의 일상 업무 유지, 구성원의 확대, 연구 플랫폼의 설립, 훈련 및 기타 활동의 증가, 우수한 자질의 직원 고용에 사용된다.

당사국의 자발적 기여금은 IACA 설립협정 제11.(1).a에 따라 IACA의 재정에 핵심 요소로 언급된다. 게다가, IACA 재정 규정 제10조에 반영된 조직 구성원의 합의를 상기시키자면, “자발적 기여금은 IACA의 일반예산에 대한 기여를 우선적으로 포함한다.” 고 되어 있다. IACA의 주요 재정원천으로서 역할하는 적절한 일반 예산이 있어야만, IACA는 계속해서 일상 업무를 수행하고 작업 계획을 이행할 수가 있다.

2012년 9월 21일 임시위원회에서 채택하고 2012년 11월 29일 제1차 당사국 총회, 2013년 12월 11일 제2차 당사국 총회, 2014년 11월 20일 제3차 당사국 총회, 2015년 12월 11일 제4차 당사국 총회, 2016년 11월 11일 제5차 당사국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합의된 IACA 재정 규정 제4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적절하게 충분한 자금지원을 받는 일반 예산 배정을 특히 강조해야 할 것이다.”

이는 2017년 10월 3일 제6차 당사국총회 결의안 3번 결의안에 반영되어, “IACA의 적절한 재정 자원이 있어야 장기적 관점에서 IACA가 스스로 존속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모든 당사국과 서명국, 공공과 민간 부문의 공여자, 국제사회가 관련 정책 및 지침에 따라 IACA 재원을 자발적으로 지원하도록 강력히 장려하고, 현실적인 예산과 비용 효과성에 기반한 적절한 일반 예산 배정을 특히 강조해야 함을 고려하고, IACA가 청렴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그 목적과 전략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2017-2020 작업 계획 전략목표 1+에서 제안된 IACA의 재정자원에 대한 대안적 기여 수단에 대한 방안을 검토한다.” 고 되어 있다.

조직 발전의 현단계에서, 일반 예산은 작업 계획의 실현, IACA의 발전과 성장,

국제우수센터로서 전반적인 이미지 제고에 필요한 핵심 재정 기제를 구성한다.

2019년 예산

항 목	(유로)
상임 교직원	
법·범죄학부	254,687.84
정치학부	254,687.84
사회·인류·심리학부	254,687.84
경제·경영학부	254,687.84
철학·윤리·교육학부	254,687.84
	1,273,439.20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	
프로그램 개발 및 이행	458,767.50
	458,767.50
구성원 및 협력관계	
회원국 관계	237,208.08
프로토콜	155,568.93
회의 운영 서비스	124,265.38
졸업생 서비스	50,170.17
대표 비용	10,404.00
방문객 관리	15,606.00
회의장 임대료	31,212.00
UNODC 행정서비스	21,848.40
	646,282.95
학생, 참여자, 이해관계자 관리	
행정 서비스	50,170.17
고객관리운영시스템	15,300.00
인쇄, 인쇄프로그램, 인쇄기 임대	15,606.00
사무용품	20,808.00
우편 및 배달 서비스	6,242.40
	108,126.57
캠퍼스 관리 및 유지	
시설 관리 및 보안 서비스	69,190.76
외부 보안 서비스	8,323.20
청소	49,012.08
제3자 청소 및 청소용품	11,444.40
전기	46,818.00
난방	26,010.00
운영비 [기타]	176,868.00
유지	30,600.00
가구	8,160.00
	426,426.44
회의 참석	
여행경비 및 운영	112,594.17
대중 교통	5,202.00
일비	6,242.40

숙박	20,808.00
여행자 보험	2,496.96
	147,343.53
인적자원	
인적자원 운영	154,570.15
사고 보험	36,371.97
채용 비용	15,606.00
직원 개발 및 회비	26,010.00
자발적 사회 비용	12,484.80
이의신청 예비	10,404.00
	255,446.91
재정, 조달, 보고	
재정운영 및 보고	159,472.51
조달	74,095.21
장부기록 재정 컨설팅	22,888.80
은행 수수료 및 거래 비용	5,202.00
환율	26,010.00
	287,668.52
법무	
법무	174,591.60
법률컨설팅	5,202.00
	179,793.60
도서관	
도서관	55,072.53
전자 자료	41,616.00
도서 및 발간	20,808.00
도서관 소프트웨어 컨설팅	2,080.80
	119,577.33
정보통신	
정보통신 운영	74,095.21
정보통신 기기	18,727.20
라이선스 및 수수료	8,323.20
전화 임대 및 운영	6,242.40
전화비	12,484.80
인터넷 비	8,323.20
	128,196.01
홍보 등	
홍보	174,591.60
디자인	50,170.17
홈페이지 및 소셜 미디어 관리	83,298.59
마케팅, 광고, 홍보	31,212.00
정보지 및 브로셔	31,212.00
현지 컨설팅 및 언론관계	10,404.00
	380,888.36
교통 및 카풀	
유지 및 리스	8,568.00
연료	3,121.20

보험 및 기타 비용	5,202.00
인턴 지원비(교통)	7,282.80
	24,174.00
기타 비용	
업무책임 보험	5,202.00
의료비	1,040.40
사회 관계 및 기부	2,080.80
예비비(8%)	
예비비	365,414.41
	365,414.41
합계	

IACA 프로그램, 훈련, 활동에 따른 예상 수익

2019년 프로그램, 연수, 활동 등을 통해 산출되는 금액. 이 금액은 일반 예산으로 포함됨	
합계	-823,140.00

2018.9.28.

당사국 총회
제7차 회의

문서번호: AOP7-Res-2

일반사안에 대한 결의안

당사국 총회는,

국제기구로서의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협정(설립협정)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IACA 당사국이 점점 증가하여 현재 73개 당사국이 있으며, 반부패 분야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협력 협정을 지속적으로 체결하여, IACA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한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국제적으로도 핵심 이해관계자들과 양자 및 다자 협력을 증진하고 있음을 환영하면서,

UN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와 17번째 지속가능발전 목표, 특히 16번,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촉진, 모든 이를 위한 정의의 제공,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제도 수립, 16.5번 모든 형태의 부패와 뇌물을 본질적으로 축소한다는 목표를 상기하면서,

부패가 사회의 안정과 안전에 대한 장애와 위협으로 인해, 민주주의, 윤리, 정의의 가치와 제도를 훼손하고, 공평한 기회, 지속가능발전, 법치를 위협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2017년 11월 7-10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7차 UN반부패협약 당사국총회의 결과를 환영하면서, 당사국이 UN반부패협약 이행을 위해 학계 등 이해관계자와 공동 노력할 것을 검토하도록 요청하는 “UN반부패협약의 효과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지원 촉진” 제하의 결의안 7/3 채택에 주목하며,

2016.12.19. UN 결의안 A/RES/71/2018 "UN반부패협약에 따라 부패관행과 부패수익 이전의 예방과 척결, 자산회복 지원, 출처국 등 정당한 소유

권자로의 반환“을 환영하고, 자산회복 등 반부패 분야에서 교육, 훈련, 학술연구의 우수센터로 IACA를 인정하면서,

국가, 지역, 국제적으로 진행되는 반부패 부분에서의 학술 프로그램, 훈련, 연구, 인식제고 활동을 통해 IACA가 UN반부패협약 이행에 상당히 기여하였음을 인정하면서,

전세계 전문가들에게 높은 수준의 반부패프로그램과 활동을 제공하고 있음을 치하하면서, IACA가, 가능한 경우 포용성, 성별균형, 상이한 법적제도, 지역균형 원칙을 고려하면서, IACA가 당사국, 서명국, 옵저버, 기타 이해관계자들에게 계속해서 서비스를 제고할 것을 권고하면서,

최초의 국제수준의 반부패 석사학위 프로그램인 반부패석사과정과 민간부문내 최초의 반부패 석사과정인 국제 반부패 컴플라이언스·공동행동석사과정의 성과에 주목하면서,

IACA의 반부패 표준 및 맞춤형 훈련의 긍정적 영향에 주목하면서,

IACA가 지역여름아카데미, 맞춤형 훈련 등, 프로그램과 활동을 전세계 여러 곳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적으로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고, 반부패 원칙과 우수관행을 더욱 강력히 촉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IACA 프로그램 수업료가 높다는 점에 우려를 표하면서,

저개발국과 개발도상국에 장학금 제공 기회 등, 사무국은 IACA 프로그램을 모든 부문과 지역의 전문가들에게 접근가능하고 저렴하게 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IACA 학위 과정과 표준 훈련에 참여를 촉진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할인정책에 주목하면서,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의욕적인 젊은 연구자가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공동행동 분야에서 창의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연구원 프로그램을 환영하며,

전세계 반부패 및 컴플라이언스 전문가 졸업생 네트워크에 대한 IACA의

지속적인 지원에 주목하면서,

공공 및 민간부문, 학계 및 시민단체간, 국가, 지역, 국제 플랫폼을 통해 부패 예방 척결 분야 현황에 대한 우수 사례와 지식을 공유함에 있어 IACA의 역할을 환영하며,

1. 2018년 1월 기니, 2018년 5월 모리셔스가 협정에 비준하고, 2018년 8월 파라과이가 협정 비준 기탁서를 제출한 것을 **환영**하며, UN회원국가 정부 간 기구들도 비준할 것을 **요청**한다.

2. 서명국들도 자국의 법령에 따라 내부절차를 이행하여 비준할 것을 **요청**한다

3. 부패 예방과 척결에서 IACA의 목적, 기능, 총체적 접근, 효과적인 반부패 노력에 대한 강고한 약속과 전적인 지원을 **재확인**한다.

4. 반부패교육이, 역량배양 강화, 투명성 촉진, 부패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UN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의 달성을 위한 중요한 수단임을 **인정**한다.

5. 부패 예방과 척결에서 지역 및 국제적 반부패 회의체에서 적극적 참여, 역량배양 활동, 다양한 프로그램과 훈련을 통해 포용적 다자적 접근을 추구하는 국제적 노력에 대한 IACA의 기여에 **감사**한다.

6. 교육, 전문 훈련, 기술지원 핵심 영역에서 이아카의 학술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에서 참여를 지원하는 등, IACA가 협약 당사국들에게 서비스 전달 제고 노력을 지속할 필요를 **강조**한다.

7. IACA는 반부패 분야내 관련 국내 및 국제 대학 및 학술 기관과 연구협력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며, 요청시 당사국의 법집행기관내 전문 훈련 아카데미가 반부패 훈련 커리큘럼을 설계, 이행, 개선하는 것을 지원한다.

8. IACA가 유의미하고 결과 중심적인 대화를 지원하고 제고하며, 부패 예방과 척결 분야에서 현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 이해관계자와 협력을 촉진할 것을 **권장**한다.

9. IACA는 반부패 관련 지속적이고 점증하는 사안에 연구 부문과 학술 프로그램에서 특히 관심을 표할 것을 **요청**한다.
10. IACA는 계속해서 부패의 모든 측면에서 대한 혁신적 연구를 주도하고, 국제 및 지역 단위에서 관련 반부패 우수사례를 고려하여, 이아카 관련 프로그램과 활동의 틀안에서 적절히 반영하고, 활용할 것을 **요청**한다.
11. 국가, 지역, 국제적으로 부패 해결을 위한 지식, 기술, 노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IACA의 모든 부문 부패에 대한 연구, 반부패 고등 교육, 이를 위한 심층적 분석과 훈련에 기여하는 강화된 활동에 **주목**한다.
12. IACA가 현재의 법적제도 등 자산회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현재 법적 제도의 이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우수사례와 문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자산회복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IACA의 현재 자산회복 등 부패에 대한 제도적 대응에 대한 학술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13. 모든 당사국과 서명국, 옵저버, 기타 이해관계자는 역량배양과 기술지원 제공자로서, 학계, 시민사회, 민간부문, 기타 국제 관계자간 부패로 인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협력과 부문간 대화를 제고하기 위해, IACA를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 14 또한 모든 당사국과 서명국, 옵저버, 기타 이해관계자는 반부패 분야에서 우수사례, 지식, 경험 공유의 장으로 IACA를 전면적으로 계속 활용할 것을 **권고**한다.
15. 2012.11.9.에 서명한 UN과 IACA간 협력합의를 고려하여, IACA는 UNODC와 공동 활동 및 훈련을 개발할 것을 **제안**한다.
16. 모든 IACA 기구는 각각의 업무범위에 따라 제6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된 2017-2020 작업계획을 효과적으로 이행할 것을 **요청**하며, 당사국과 서명국은 동 작업계획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자발적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17. IACA에 할인정책의 일환으로, 2017-2020 작업계획에 예정된 것처럼 당

사국인 개도국 참석자들에서 수업료 할인 노력할 **권고**한다.

18. 당사국과 서명국, 기타 공여자들이 제공한 자원, 파견직원, 현물기여에 **감사**한다.
19. 동시에 점증하는 요청에 대응하면서, 장기적으로 독자생존할 수 있도록, IACA에 충분하고 적절한 재원이 제공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적절하게 재원이 마련된 일반예산 제공을 특별히 강조되어야 함을 고려하면서, 모든 당사국과 서명국, 옵저버, 공공과 민간부문 공여자들이 자발적으로 IACA에 기여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20. 모든 당사국과 서명국, 옵저버는 IACA 학위과정과 훈련에 참여하는 자국민들을 위한 장학금 또는 기타 재정 지원 제공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21. 당사국과 서명국, 옵저버, 공공과 민간부문 공여자들이 자발적으로, 저개발국가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IACA 장학기금에 기여할 것을 **제안**한다.
22. 당사국은 IACA 학위 프로그램과 표준 훈련에 관심있는 자국민들에게 할인혜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23. 모든 당사국과 서명국, 옵저버, 공공과 민간부문 공여자들은 2017-2020 작업계획에 명시된 바 있는 IACA 재원에 대한 자발적 기여의 대안적 수단을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
24. 당사국과 서명국, 옵저버는 자국내 법령하에서, MACS와 IMACC 등 IACA 학위과정을 인정하기 위한 가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25. 직원, 연수생, 강사 선발에 있어서, 공평한 기회, 비차별, 성별 균형, 상이한 법적 제도, 지역간 균형 등 IACA 채용 정책의 원칙과 높은 자질을 고려하는 IACA의 노력에 **감사**한다.
26. 독립 회계감사가 수행하고 집행이사회에서 승인한 IACA 회계 감사 보고서에 **주목**한다.

27. 사무국은 관련 지역 및 국제 회의체에서 동 당사국총회 결과를 공유할 것을 **제안**한다.

28. IACA 관련 기구는 제8차 총회에서 동 결의안 관련 진전 사항을 보고할 것을 **요청**한다.

2018.9.28.

당사국 총회
제7차 회의

문서번호: AOP7-Res-3

이아카 활동 강화 결의안

당사국 총회는,

국제기구로서의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협약 (이하 “협약”)을 상기하며,

IACA가 제공하는 반부패 역량강화 활동이, 반부패 교육과 전문가 훈련에 있어서 문화, 부문, 분야, 기타 국제기구를 망라하여 총체적이고, 학제간 접근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에 기여하고, UN반부패협약 이행을 지원하고 기여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제5차 당사국총회 결의안 2번 “IACA 일반예산의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결의안” 및 이집트 샤름엘셰이크에서 열린 제6차 당사국 총회 결의안 5번 “IACA 재정 책임성과 안정성 결의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을 상기하며,

UN 총회결의안 A/RES/71/208 (2016.12.19.) "UN반부패협약에 의거 부패수익 이전 및 부패 관행 예방과 척결, 자산회복과 원천국 등 합법적 소유권자에게 환수 지원”을 상기하면서, 동 결의안에서 IACA가 자산회복 등 반부패분야내 연구, 훈련, 학술연구의 우수 센터로 인정받고 있으며,

UN총회 결의안 72/707 “지속가능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불법 자금 흐름 척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또한 상기하면서,

IACA 프로그램과 활동 개발을 더욱 촉진하기를 희망하고, 이러한 활동에 대한 요구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정에 따라 IACA에 적절한 일반예

산 지원 제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정적 또는 현물, 당사국과 그 외 공여자들이 제공한 지원 등 모든 형태의 자발적 기여에 감사하면서

자발적 기여가 IACA 일반예산에 대한 기여를 우선적으로 포함해야 하며, IACA 재정 기본전략에 반영되고 2012년 9월 21일 임시위원회에서 채택되고 2017년 10월 3일 제6차 결의안(3번) 등 매 당사국 총회마다 재확인된 바 있는, 적절히 잘 구비된 일반예산 제공을 특별히 공조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2017년 10월 3일 제6차 당사국총회 결의안 1번으로 채택된 2017-2020 업무계획 전략목표와, 재정 소유권, 참여, 안정성, 지속가능성 보장에 대한 전략목표 “plus 1”에 담긴 당사국들이 대안적 자금마련 수단을 검토하도록 요청받은 점을 상기하면서,

IACA 재정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협약 당사국들에 감사를 표하면서,

UN반부패협약 제 62.2(c)조하에 설명되어 있는 “범죄자 부담”이 최초로 적용된 사례와, IACA 도서관 확장을 위한 당사국 최초의 기여 등, 2017-2020 작업계획을 기반으로 대안적 자금 마련 수단을 적용한 당사국들의 기여를 환영하면서, 협약 당사국과 서명국, 기타 공여자들이 자국내 법령하에서 IACA 재정 지원을 위한 대안적 수단을 검토해기를 바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IACA 일반예산에 대한 예산지원이 불충분하며, IACA가 2017-2020 작업계획 이행을 하는데 심각한 난관에 봉착해 있음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표하며,

2018년 9월 24일 비엔나에서 열린 최초의 정부간 전문가 회의에서 제6차 당사국총회 결의안 5번에서 예견된 자금원에 대한 정부간 워킹그룹 기능에 대해 참석자들이 견해를 표명했음에 주목하면서,

1. 협정 당사국과 서명국이, 가능한 경우, 자국내 관련자와 관련기관에 IACA 교육 기회에 대한 정보 제공 등, IACA의 목적과 활동을 통한 혜택,

기능에 대한 사무국의 홍보를 지원해주기를 **권장**하며, 이해관계자들에게도 이를 **제안**한다.

2. IACA가 협약 당사국에 대해 교육, 전문가 훈련, 기술지원 핵심 부문에서 학술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에 참여를 촉진하는 등 서비스 전달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3. 모든 국가는, 적절한 경우 재정적 또는 기타 지원 등을 통해 자국인이 IACA 프로그램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4. 협정 당사국과 서명국, 옵저버국이, MACS와 IMACC 학위 등 IACA 학위과정을 자국내에서도 학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자국내 법률과 국제법 범위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한다.

5. 당사국과 서명국, 기타 공여자들이, 무엇보다도, 협약에 따라, IACA의 주요 재정 자원으로 역할하며, 일상 운영을 수행하고 2017-2020 작업계획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예산에 자발적 기여금 제공을 **요청**한다.

6. 또한, 당사국과 서명국 기타 공여자들은, 협약에 의거, 다음을 지원하기 위한 자발적 기여금을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한다.

- a. 특정 지역 대표단을 위한 맞춤형 훈련의 이행
- b. 지역 여름 아카데미 수행
- c. 저개발국가에서 프로그램과 훈련에 참석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IACA 장학기금
- d. IACA 도서관, 교육 도구 및 교재

7. 당사국과 서명국 기타 공여자들은, 협약에 따라, 가능한 경우 아래와 같은 현물기여를 **제안**한다.

- a. IACA 직원 파견 제안
- b. 지역여름아카데미 및 IACA 석사과정 모듈의 개최 및 수행 지원
- c. 당사국 총회 개최 자원

8. IACA가 자산회복 분야나 반부패 컴플라이언스에서 신경향 등의 분야에서, 연수 프로그램, 역량배양활동, 연구 프로젝트 등 IACA의 특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교수직의 신설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9. IACA가 현재의 법적제도 등 자산회복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현재법적 제도의 이행을 촉진할 목적으로 우수사례와 문제에 대한 분석을 수행할 것을 요청한다. 이는 자산회복 분야에서 국제협력을 제고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IACA의 현재 자산회복 등 부패에 대한 제도적 대응에 대한 학술 연구가 도움이 될 수 있다.

10. 협약 제 11조에 따라, 당사국과 서명국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공동 공여자 컨퍼런스 등 자금모집 활동에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11. 관련 기구가 다음번 총회에서 동 결의안 이행을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2018.9.28.

당사국 총회
제7차 회의

문서번호: AOP7-Res-4

이아카 도서관 강화 결의안

당사국 총회는,

국제기구로서의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설립을 위한 협약 (이하 “협약”)을 상기하며,

협약에 명시된 것처럼 국제반부패아카데미의 핵심 목표는 반부패 교육 증진, 예방, 범죄화, 자산회복, 국제협력 등 부패의 모든 측면에 대한 연구 활성화, 기술지원과 전문 교육 제공, 부패 척결 관련 국제 협력 및 네트워킹 도모라는 점을 확인하며,

국제반부패아카데미의 임무를 이행하는 것은 UN반부패협약에 따라 국제적 현상인 부패의 예방 및 해결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아카데미의 전략적 목적을 담은 2017년 10월 3일 제 6차 당사국 총회 결의안으로 채택된 국제반부패아카데미 2017-2020 업무계획을 상기하며,

국제반부패아카데미의 교육 프로그램 이행을 지원하고 최고수준의 교육과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사내 도서관을 강화하여, 양질의 교육프로그램과 훈련을 제공하고, 반부패 분야의 학문적 청렴성과 과학연구를 증진시키고, 학생들의 교육적인 경험을 풍부하게 해주고, 아카데미의 다양한 프로그램의 참석을 도모하고, 협약 당사국과 서명국내 반부패 교육, 연구, 훈련 분야의 학술 및 연수 기관들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소장 도서 및 부패관련 사례연구 등의 학술 자료의 종류 확대 등을 통한

국제반부패아카데미의 사내 도서관 업그레이드 노력을 환영하며, 이런 목적을 위한 협약 당사국과 서명국의 자발적인 기여금에 감사를 표하며,
협약 당사국의 지원에 보답하기 위해 국제반부패아카데미가 ‘국제아카데미 도서관의 친구’ 코너를 마련한 것을 환영하며,

1. 2017-2020 업무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IACA가 사내 도서관을 보다 강화할 것을 **권장**한다.
2. IACA는, 반부패 분야내 학술 자원을 공유할 목적으로, 협약 당사국과 서명국내 대학과 전문연수기관과 네트워킹을 하고, 이들 기관에 적용되는 규정하에서 이들 기관과의 협력을 촉진하는 가능성을 검토해 볼 것을 **권장**한다.
3. 또한 IACA는 협약 당사국과 서명국이 국제반부패아카데미 사내 도서관의 반부패 관련 다양한 학문과 전문 학술자료를 활용을 목적으로 한 명시적인 지침을 만들 것을 **권장**한다.
4. 협약 당사국과 서명국이 국제반부패아카데미를 위해 반부패 관련 서적 및 전문 학술 자료를 추천할 것을 검토하길 **제안**한다.
5. 국제반부패아카데미의 사내 도서관 강화를 위해, 협약 당사국과 서명국이 자발적으로 재정 혹은 현물 지원을 할 것을 **제안**한다.
6. 국제반부패아카데미의 학장이자 집행서기에게 차기 총회에서 현 결의안 이행을 위해 국제반부패아카데미가 취한 조치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청**한다.

2018.9.28.

당사국 총회
제7차 회의

문서번호: AOP7-Res-5

이사회 선거 결의안

당사국 총회는,

아직 IACA 설립협정에 비준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서명국과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UN회원국 및 국제기구에게, 정식 회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가장 빠른 시일내에 절차를 완료하거나 가입할 것을 권하며, 이를 통해 안정적인 지리적 다양성이 모든 IACA 기구내에 보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

1. 설립협정 제 5조 3(d)항에 따라, 후보군에 바탕으로, 다음 사람(알파벳 순)을 이사회 임원으로 선출한다:
Mr. Youssef Magdi (이집트, 아프리카) (2018-2024)
Mr. Guo Yong (중국, 아태그룹) (2018-2021)
Mr. Hasan Al-Yasiri (이라크, 아태그룹) (2018-2019)
Mr. Pak Un Jong (한국, 아태그룹) (2019-2024)
Mr. Alexey Konov, (러시아, 동유럽) (2018-2024)
Mr. Eduardo Vetere (UNODC)
2. 이들에게 부여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따른 이사들의 헌신에 감사를 드린다.
3. 이 선거는 향후 이사회 선거에 영향이 없음을 강조한다.

5. 2020년 예산
6. 기타 사안
7. 제9차 총회 임시 안건
8. 제8차 총회 보고서 채택

제8차 당사국 총회 소집 및 의제 결의안

당사국 총회는,

1. 제8차 당사국 총회를 아스타나에서 개최하기로 한 카자흐스탄의 초청에 감사와 함께 주목한다.
2. 당사국 총회는 가능하면 2019년 2분기에 아스타나에서 열리는 것으로 하며, 조건과 준비는 이아카와 카자흐스탄이 합의한다.
3. 또한 제8차 당사국 총회의 임시 의제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직 관련 사안:

- 가. 개회
- 나. 임원 선출
- 다. 안건 채택 및 작업 구성
- 라. 옵서버
- 마. 신임장 관련 사무국 보고서 채택
- 바. 일반 토론

2. IACA 발전: 관련 기구 보고서 (검토 및 논의)

3. 작업 프로그램(진행상황)

4. IACA 기금모금 활동

- 가. 일반
- 나. 전문가 회의 및 제6차 당사국총회 결의안 5번 이행 관련 재정 사안에 대한 정부간 워킹그룹 업무와 현황 보고 및 토론